

도입
기도

사랑의 주님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다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과 평강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Shout for Joy and Sing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Shout for joy and sing your praises to the King
Lift your voice and let your hallelujahs ring
Come before His throne to worship and adore
Enter joyfully now the presence of the Lord
You are my Creator, You are my Deliverer
You are my Redeemer, You are Lord And You are my Healer
You are my Provider You are now my Shepherd and my Guide
Jesus, Lord and King, I worship You

본문 빌립보서 3:7-10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Philippians 3:7-10

7 But whatever gain I had, I counted as loss for the sake of Christ. 8 Indeed, I count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his sake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as rubbish, in order that I may gain Christ 9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come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from God that depends on faith— 10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may share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3:1)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령으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이나 성취에서 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충분함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종교적 행위나 인간의 자력에 자신을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3:2-3). 바울 역시 한때 자신의 혈통, 열심, 도덕적 의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가치”에 비하면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3:4-6). 복음의 본질은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3:9). 존 파이퍼(John Piper)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The Great Exchange)”이라 부르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이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3:10)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관계적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켈러는 “부활의 능력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으로 침투하여 악함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3:12). 파이퍼는 이를 “거룩한 불만족(holy dissatisfaction)”이라 부르며, 신앙의 여정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3:13-14)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달리기라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으로부터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인정받은 자로서 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대조합니다(3:18-20). 세상은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일시적인 쾌락과 안락을 좇지만, 믿는 자들은 시선을 들어 다시 오실 구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3:21).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은 완전합니다 — 과거의 죄를 덮는 의, 현재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소망.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완전하게 됩니다.

Paul begins this chapter with a simple yet powerful command: "Rejoice in the Lord" (3:1). True joy does not come from circumstances or achievements but is rooted in the unchanging sufficiency of Christ. He warns the Philippian believers not to place their confidence in religious performance or human credentials (3:2-3). Paul himself once took pride in his heritage, zeal, and moral righteousness, yet now he considers all of it a loss compared to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3:4-6). The essence of the gospel is not achieving righteousness but receiving it from Jesus. Paul finds in Christ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not by works, but through faith (3:9). John Piper calls this "The Great Exchange," meaning our sin is transferred to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is transferred to us. This is the heart of Christ's provision—we are accepted before God not because of what we have done, but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for us. When Paul longs "to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3:10), it signifies not intellectual agreement but relational intimacy. Tim Keller explains that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is not only a future reality but a present force that penetrates our lives, enabling us to live with hope even in weakness." Paul confesses that he is not yet perfect, but as one who has been seized by Christ, he continues to press on (3:12). Piper calls this "holy dissatisfaction," describing the Christian journey as a life that refuses to settle for past achievements and continually seeks deeper joy in Christ. Paul says he forgets what is behind and strains forward toward what is ahead (3:13-14). This is not a run to earn God's love but a movement born out of already having received it—it is running as one already accepted. Finally, Paul contrasts those who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with those whose citizenship is in heaven (3:18-20). The world makes its stomach its god and chases temporary comfort and pleasure, but believers lift their eyes to the returning Savior. He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to be like His glorious body (3:21). Christ's provision is complete—His righteousness covers our past, His power sustains our present, and His promise secures our eternal future. In Him, there is no lack, and in Him, our joy is made complete.

1. 내가 가장 기쁨이 넘쳤던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Let's share about a time when you felt the greatest joy in your life.

2. 바울은 오늘 기뻐하라 선포하며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상관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성도임을 이야기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기뻐한다면 무엇이 그 기쁨의 근원인가요?

Today, Paul proclaims "Rejoice" – teaching us that regardless of our emotions or circumstances, we can rejoice because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m I someone who can truly rejoice in my relationship with Jesus? If so, what is the foundation of that joy?

3.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의 백성을 뛰어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하늘 나라 시민으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Paul tells us that our citizenship is not of this earth but of heaven. As I live in this world today, what worldly values am I still clinging to? As citizen of heaven, what should I pursue to experience true and lasting joy?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순간의 기쁨 쾌락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앎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oly Lord, thank You for teaching us that the joy of our lives should not be a fleeting or momentary pleasure, but the joy that comes from our relationship with You. Help us to rejoice in knowing You, to be thankful that we are Your people who live to fulfill Your will through Your Word, and to live as true saints who reflect Your joy. We pray in Jesus' name.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1. 나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Lord, help me to look beyond my emotions and circumstances and fix my eyes on Your will.

2. 나의 신분을 알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Help me to know my identity and my relationship with You, and to find true satisfaction and joy within it.

3.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더 깊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As a citizen of heaven, help me to pursue the things above and live a deeper life of joy in You.